

# ‘땅끝에서 베를린까지’ 전남민주시민토론학교 ‘국내캠프’ 실시

### 3박 4일간 서울·경기도 파주시·강원도 철원군 일대의 유적지 답사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8명·지도교원 15명 함께 진행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지난 16일 아침, 목포역에서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8명, 지도교원 15명 등과 함께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2023년 전남민주시민토론학교 국내캠프’(이하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도교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일대의 유적지를 답사하며 평화의 가치와 공존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캠프 1일차에는 △독일대사관 참사관의

독일 통일 강연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탈북민과의 만남 △전 통일부 정책실장의 통일정책 특강 △김누리 교수의 평화와 공존 특강이 이루어지고, 2~3일차에는 파주지역의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 △임진각평화누리공원, 철원지역의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을 돌아보며 남북 분단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김성희 원장은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학생들이 주제탐구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며 내실 있는 주제별 탐구 결과물을 산출하길 바란다”면서 “통일 염서쓰기, 백일장, 포토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 토론, 글쓰기 참여를 통해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과 민주시민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민주시민토론학교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평화의 가치를 아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독서토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의 여



정오로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역사와 미래’, ‘자연과의 공존’을 주제로 사전캠프 2회, 국내캠프(3박 4일), 국외캠프(9박 11일), 사후캠프(1박 2일) 2회, 성과나눔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최이슬 기자



## 목포교육청, ‘2023 R&E 인문학 특강’ 개최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목포영재교육원 학부모 및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2023. R&E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R&E(Research & Education)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 하고, 이에 대해 소논문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산출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를 융합한 형태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필수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의사소통 역량, 데이터 다루는 능력, 협업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역량 함양을 위하여 목포영재교육원은 ‘글로벌 IT기업 김태원 전무’를 초청하여 R&E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태원 전무는 이번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사회를 전망, 자녀들이 사회를 이끄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미래형 인재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르

게 보고, 창조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협업하며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목포교육지원청 정대성 교육장은 “목포영재교육원 학생들이야말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이며, 이번 특강을 통해 자녀를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 방법을 얻어 통찰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OO 학부모는 “이번 특강에서 미래사회는 한가지 전문 분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예술, 데이터, 컴퓨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시대라는 내용과 함께 제시한 예시들이 인상 깊었으며, 우리 아이에게도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OO학생은 “강사님의 말씀처럼 매일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아는 단어도 국어사전을 찾아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한 더 나아가 남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완도 금일초 병설유치원, ‘제13회 금일읍 다시마 축제’ 식전 공연 참가

### 우산 활용한 커플윙동 및 영탁의 전이야 노래 맞춰 군무 준비



완도 금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 5월 12일에 몸 속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바다의 불로초! 금일 다시마라는 주제로 열린 제13회 금일읍 다시마 축제의 식전 공연에 참가하였다. 금일읍다시마축제는 금일읍 특산품을 홍보하고 금일읍민과 향우들의 화합, 지역 인지도

확산, 관광객 유치 등을 도모 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의 식전 공연에 초청 받았다. 금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5세 잎새반, 7세 열매반)은 다시마 축제 공연을 위해 1달여간의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했다. 잎새반은 우산을 활용한 커플윙동, 잎새반은 영탁의 전이야 노래에 맞춰 군무를 준비했다. 본 행사에서 귀여운 커플 윙동과 군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잎새반과 열매반은 지역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지역 내 할머니·할아버지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전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금일초등학교는 앞으로 마을학교 활성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순천교육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역 연계 진로 전공 캠프 실시

### 관내 고1·2학년 대상,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연계 4개 강좌 운영

순천교육지원청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역 연계 진로 전공 캠프’를 실시했다. 오는 20일에도 이틀간 2기 진로 전공 캠프를 추가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고교학점제 순천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

하여 학생들의 영상미디어 분야에 대한 진로 이해 및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캠프에서는 예술을 표현하는 연기자/크리에이티브 시각디자이너/K 콘텐츠의 시작, 구성작가/ 대중문화 형성의 기술, 방송 영상제작자 등 4개의 진로 전공 강좌를 운영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